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 일시	제한없음(즉시)
문의	AI연구원
	원유리 전화: 880-4259, 이메일: yrwon@snu.ac.kr

배포일: 2023.7.28.(금)

서울대 AI연구원, 미래 팬데믹 조기 대비에 산학연 협력 추진

- JDC-인바이츠생태계와 상호 전략적 협력 MOU 체결
- 첨단AI·보건·의과학기술 R&D 기반 국제팬데믹연구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유치 기대

- 서울대학교 AI연구원(원장 장병탁, 이하 ‘AI연구원’)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(이사장 양영철, 이하 ‘JDC’)와 인바이츠생태계(의장 신용규, 이하 ‘인바이츠’)와 함께 미래 팬데믹 조기 예측 및 대비를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27일(목) 전했다.
- AI연구원과 JDC, 인바이츠 세 기관은 7월 25일(화) JDC 본사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 및 팬데믹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- 세 기관은 미래 팬데믹 보건위기 대비를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며, 이번 협약을 통해 월드클래스 의과학 인력 유치, 글로벌 팬데믹 보건의료 인력의 공동연구와 교류 및 국제팬데믹 연구원 인프라 설립 등 국내 정착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합의했다.
- 미래 신변종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서울대학교 AI

연구원 국제팬데믹 인텔리전스센터(이하 'IPSAI')는 49억 원의 연구예산을 확보해 지난달 12일 출범했고, 향후 10년간 연간 450억 원 규모의 예산에 기반한 「국제팬데믹연구원」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.

- IPSAI는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으며, 향후 글로벌 국책 감염병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·연계의 “글로벌 거점” 사명을 통해 국내외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. 그 일환으로 서울대학교, 울산과학기술원, 건국대학교, 경북대학교, 클리노믹스 등 산학연 공동연구진이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팬데믹 첨단연구를 수행하고 있다.
- 특히, IPSAI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「국제팬데믹연구원」은 전영일 센터장을 중심으로 다학제·산학연병·첨단의과학·AI 등 421인의 국제연구진으로 구성된다. 마크 립시트 하버드 보건대학원 교수, 데이빗 피스만 캐나다보건대학원 교수 등의 석학들을 포함한 국제자문단이 연구를 지원한다. ▲미래팬데믹 조기발견, ▲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기감시체계 개발 및 글로벌 통합, ▲팬데믹 기전 규명 및 영향 평가에 근거한 치료제 개발, ▲유전체 분석에 근거한 팬데믹 환자 조기치료 및 회복, ▲전생애주기 디지털 헬스케어기술 개발 등 감염병 미래 대응을 위한 첨단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.
- 한편, 인바이츠는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인바이츠 바이오코아, 크리스탈지노믹스, 헬스커넥트, 인바이츠지노믹스, 프로카젠 등 11개 전문기업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.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에 따른 백신·치료제 개발 및 신종 감염병의 사전 예방·방역시스템 대응체계에 대한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국제 팬데믹 연구 발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
- 양영철 JDC 이사장은 “향후 몇 년간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신변종 감염병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비해야 하는데, 이를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것”이라며, “미래 감염병·팬데믹 대비를 위한 R&D 분야 기술 연구 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소감을 밝혔다.
- 신용규 인바이츠 의장은 “인바이츠의 강점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활용해 국제적 팬데믹 연구 공조와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- 서울대학교 장병탁 AI 연구원장은 “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 한국이 G7 국가를 선도하는 AI/의과학 종합역량을 세계와 공유할 때가 되었다.”고 그 비전을 밝혔다.